

□ 사례명 : 철저한 사전심사와 원만한 주민협의를 통한 예산절감

구 분	주 요 내 용
① 사업 개요	○ 위 치 : 고령군 성산면 무계리~다산면 송곡리 (지방도905호) ○ 추진진간 : 2018년 ~ 2022년(5년간) ○ 사 업 비 : 160억원(발전촉진형 지역개발사업 국비100억원) ○ 사업내용 : 다산~동고령 산업단지간 연계도로 확장사업
② 추진 경과	○ 2020. 01. :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완료 2020. 06. : 분할측량 및 보상계획 열람공고 2020. 08. : 편입토지 감정 및 보상통보 2020. 12. : 비관리청 도로공사 시행 등의 허가 2021. 02. : 공사 착공 2022. 12. : 공사 완료
③ 장애요인 극복 내용	○ 도로확장시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비 및 이설작업에 따른 공사비가 추가로 소요됨 ○ 편입토지 소유자 보상관련 문제 발생
④ 우수사례 내용	○ 사업 전, 철저한 사전심사를 통한 예산 절감 노력 ○ 주민들과의 원만한 보상협의를 진행함으로써 사업추진 애로사항 해소
⑤ 성과	○ 수도 관로이설에 따른 이설비 및 대체부지 확보 비용 52억을 절감하고,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원만하게 사업추진

철저한 사전심사와 원만한 주민협의 통한 예산절감

1. 과제 선정 내용

- 다산~동고령 산업단지간 연계도로 확장사업 추진 중에, 편입토지 소유자들과의 보상문제 및 대체부지 확보 등 애로사항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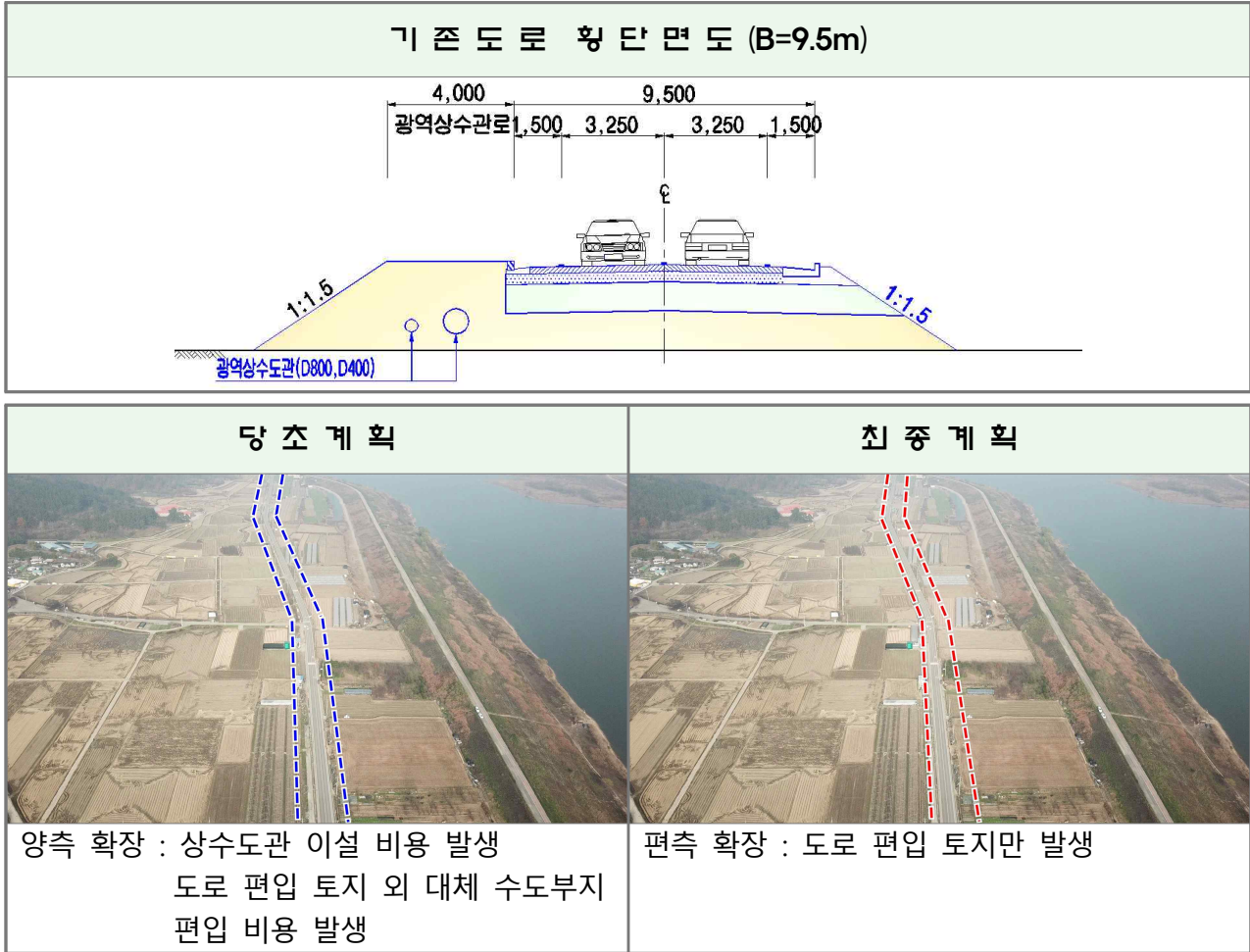
2. 문제원인 분석

- 기존 2차선 도로를 4차선 도로로 확장하고자 할 때 일반적으로 양측으로 토지를 편입하여 도로확장 사업을 진행하여야 하나, 수도용지가 도로확장용지에 편입될 시 대체부지를 확보하여 수도관을 이설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대체부지 확보 보상비 및 이설작업에 따른 공사비 등 약 52억원 정도가 추가 소요됨.
- 현장사진 및 관련 도면



3. 방안 마련 및 실행

- 현장여건과 사업비, 설계의 경제성 등을 고려할 때, 수도용지는 농기계 도로로, 차도는 반대편측으로 확장함이 가장 합리적이고 경제적이라 판단되어 계획을 변경하여 다산면 방향 편측으로 도로를 확장하고 수자원 공사 관로부지에 대하여 무상으로 농기계 도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수자원 공사와 협의함.



4. 장애극복

- 편측 확장에 대한 편입토지 소유자의 집단 반발에 대응하여 원만한 보상협의를 위하여 수차례 주민 설명회를 실시하고 편입 부지를 최소화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검토하여 최종계획(안)에 대하여 주민 협의를 완료하였음.

5. 성과

- 수도 관로이설에 따른 이설비 및 대체부지 확보 비용 52억 절감

구 분		예산액(백만원)	이설수량
대체부지(수도용지) 확보 보상비		1,200	7,016㎡
수도관로 이설비	생활용수 D400	1,400	2.0km
	공업용수 D800	2,600	2.0km
절 감 액		5,200	